

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15	.	.	.	15
신 문	15	.	.	.	15
TV(방송)	.	.	.	.	.
기 타	.	.	.	.	.



경기도소방

화성소방서

언론 보도 사항 목차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화성소방서 추석 앞두고 벌소임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경기일보	.	1
2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경인매일	.	2
3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대한투데이	.	3
4	화성소방서, 벌초·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 당부	도민일보	.	4
5	화성소방서, 벌초 성묘 시 벌 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서울매일	.	5
6	화성소방서, 벌초·성묘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중부뉴스	.	6
7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때 벌쏘임 주의 당부	중부일보	.	7
8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시 ‘벌 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화성뉴스	.	8
9	화성소방서, 벌초·성묘시 벌쏘임 주의 당부	화성신문	.	9
10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쏘임 ‘안전사고 주의 당부’	화성 인터넷신문	.	10
11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화성 인터넷신문	.	11
12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매일일보	.	12
13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경인매일	010	13
14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대한투데이	011	14
15	화성소방서,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 당부	도민일보	006	15

화성소방서, 추석 앞두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채태병 기자 ctb@yeonggi.com | 송고시간 2020.09.15 15:24 | 댓글 0

**추석맞이 벌초와 성묘 시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경기도소방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문명

- 벌집제거 용물구조 신고 증가하는 9월까지 업무 전담
- 비긴급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방지

벌쏘임 예방법

- ✓ 밝은색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노출 최소화
- ✓ 벌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이탈
- ✓ 산행·야외활동 시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자제

벌에 쏘였을 경우

-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
- ✓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예방은 굿! ▶ **안전사고 예방**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벌쏘임 사고주의 현로그래픽

화성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벌 쏘임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경계를 맞아 벌초와 성묘 등을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 벌 쏘임 등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서 시작했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특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인 탓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은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선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어두운 색의 옷보다는 밝은 색의 옷 착용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보낼 수 있게 화성소방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채태병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채태병 기자
다른기사 보기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최규복 기자 | 승인 2020.09.15 16:24 | 댓글 0



화성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화성소방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이해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 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히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활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등록일자 [2020년 09월 18일 17시 07분]



추석맞이 벌초와 성묘 시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경기도소방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 벌집 제거·동물구조 신고 증가하는 9월까지 업무 전담
- 비긴급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방지

벌쏘임 예방법



- ✓ 밝은색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노출 최소화
- ✓ 벌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이탈
- ✓ 산행·야외활동 시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자제

벌에 쏘였을 경우

-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
- ✓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새로운 경기
굉장한 세상
Global Inspiration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성소방서(서장 조광래)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이해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을 사들 자제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준수에 숙지해두고, 철저하게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박준기 기자

화성소방서,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 당부

+ - 📷 ✉ 📄

용만중 기자 | 승인 2020.09.15 15:54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이해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하게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활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만중 기자 dmillbo@naver.com

화성소방서, 벌초 성묘 시 벌 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2020년 09월 15일 (화)

국승우 ✉ shilbo@naver.com

국승우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5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한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는 최근 추석을 맞이해 벌초와 성묘 등을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을 착용해야 하며 긴팔과 긴바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는 자제하고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등 간단한 안전 수칙을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방서는 예초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함은 물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르게 옷 세탁과 샤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활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벌초·성묘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

화성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 밝을 자극하는 할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명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히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활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추석맞이 벌초와 성묘 시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경기도소방 '민원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 범죄제거·동물구조 신고 증가하는 9월까지 업무 전담
- 비긴급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방지

벌쏘임 예방법



- ✓ 밝은색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노출 최소화
- ✓ 벌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이탈
- ✓ 산행·야외활동 시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자제

벌에 쏘였을 경우

-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
- ✓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새로운 평가 > **평정한 세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때 벌쏘임 주의 당부

▲ 신창균 : ○ 입력 2020.09.15 17:44 : ● 댓글 0



화성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화성소방서는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위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 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긴팔·긴바지·모자 등 신체 노출 최소화,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을 평상시 숙지해야 한다.☒

☒

또한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창균기자



**추석맞이 벌초와 성묘 시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경기도소방 '익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 벌집제거·동물구조 신고 증가하는 9월까지 업무 전담
- 비긴급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방지

벌쏘임 예방법

- ✓ 밝은색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노출 최소화
- ✓ 벌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이탈
- ✓ 산행·야외활동 시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자제

벌에 쏘였을 경우

-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
- ✓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당부는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석을 맞아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 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에 따른 예방조치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는 것.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별초·성묘시 벼쏘임 주의 당부

서민규 기자 2023.09.23 (15:04)



추석맞이 별초와 성묘시
**벼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경기도소방 '민들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 범죄자가 등불구조 신고 증가하는 9월까지 업무 전달
- 비긴급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방지

벼쏘임 예방법

- ✓ 밝은색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노출 최소화
- ✓ 밭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이탈
- ✓ 산행 야외활동 시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자제

벌에 쏘였을 경우

-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
- ✓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서민규 기자 | 운영한 기관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성소방서

화성소방서(서장 조철재)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을 할 때 벼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추석을 맞이한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벼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을 벌초의 성황기로 삼는 특성상 벌의 공격성에 감행하는 시기가 많아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벼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을 자극하는 말에 관한 통제를 사들 자제 ▲밝은색과 긴 소매·장바지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긴팔·긴바지화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밤낮에 나는 종식이나 울음 자제 ▲밭전을 돌변하거나 전도원을 갈아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다양한 안전 수칙 준수사항에 숙지해두고, 철저하게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벼초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해야하고, 전도기 등 화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손을 물 세척 및 샤워가 필요하다.

조철재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활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쏘임, '안전사고 주의 당부'

화성경제신문 2023/05/11 (11:04)



© 화성경제신문

【화성경제신문】 춘기수 거점 화성소방서(서장 조광재)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활동을 할 땐 쏘임 사고를防范하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당부했다.



© 화성경제신문

추석을 맞이해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벌과 독침과 벌의 공격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을 공격하는 벌이 발견되면 손을 가리지 ▲벌집과 벌은 어두운색과 붉은색, 노란색의 옷 ▲긴팔·긴바지 등 긴 옷을 이용해 신장 노출 최소화 ▲모자가 아닌 통치이나 통치 가질 ▲벌집을 발견하거나 큰 벌을 마주 시에는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를 한다면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 외에도 벌쏘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조구, 안전화 등 작업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하고, 작업을 진행 중에는 벌쏘임 위험 리를 작업과 무가 부를 것을 사각 및 사각이 필요하다.

조광재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을 안전수칙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화성인터넷신문 1호 / 기사입력 2020/09/15 (13:20)

**추석맞이 벌초와 성묘 시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경기도소방 '민원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 벌집제거·동물구조 신고 증가하는 9월까지 업무 전담
- 비긴급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방지

벌쏘임 예방법

- ✓ 밝은색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노출 최소화
- ✓ 벌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이탈
- ✓ 산행·야외활동 시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자제

벌에 쏘였을 경우

-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
- ✓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새로운 경기 | 환경안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isnews

© 추석 성묘 벌초시 벌쏘임 등 사고 주의 안내문

【화성인터넷신문】이경애 기자=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 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이해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 등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9~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하게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연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해야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활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한철희 기자 | 승인 2020.09.16 08:15 | 댓글 0



(화성소방서전경)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이해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긴 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히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활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Google 광고

의견 보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①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화성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 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 벌

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 긴 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수칙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히 지켜야한다.

화성 최규복기자

news114@kmaeil.com

화성소방서, 벌초·성묘 철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추석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 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이해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 색의 옷 착용 ▲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 단맛이나 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히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

**추석맞이 벌초와 성묘 시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경기도소방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 벌집제거·동물구조 신고 증가하는 9월까지 업무 전담
- 비긴급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방지

벌쏘임 예방법
✓ 밝은색 옷 착용, 소매가 긴 옷을 입어 노출 최소화
✓ 벌집 접촉 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이탈
✓ 산행·야외활동 시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자제

벌에 쏘였을 경우
✓ 벌침은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 제거하고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
✓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를 철저히 착용해야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백문기 기자

화성소방서,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 당부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 중 벌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을 맞이해 벌초성묘를 위해 산과 들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을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8~9월은 말벌의 산란기로 침의 독성과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벌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 벌을 자극하는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의 옷 보다는 밝은색의 옷 착용 ▲ 긴팔긴바지와 모자 등을 이용해 신체 노출 최소화 ▲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자제 ▲ 벌집을 발견하거나 건드렸을 경우 서둘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 등 간단한 안전 수칙 평상시에 숙지해두고, 철저히 지켜야한다.

그 외에도 예초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각종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하고, 진드기 등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 옷 착용과 귀가 후 빠른 옷 세탁 및 샤워가 중요하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활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추석, 안전한 가을을 위해 화성소방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만중 기자